

# 완도군·대우재단, 마음치유센터 조성 협약체결

### 노화읍에 도서민 건강돌봄센터 연계 문화예술 치유 공간 조성 완도대우병원 기숙사·부속동 공간 활용...지역 문화 여건 개선

완도군과 대우재단(이사장 김선협)이 지난 27일 완도군 마음치유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신우철 완도군수와 김선협 대우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우재단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도서 주민들의 건강 관리와 복리증진을 위해 완도군과 대우재단이 건강돌봄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데 이어 체결한 것으로 마음치유센터는 구 완도대우병원(노화읍 소재) 부지에 조성된다.

협약으로 대우재단은 건물 일부 무상 임대 및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10억 원 상당의 재원을 지원하고, 아트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다.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마음치유센터는 과거 완도대우병원 기숙사와 부속동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을 활용해 예술작품 전시 공간 및 작가들이 거주하며 창작할 수 있는 레지던스가 들어서며, 예술작가 등 관계 인구 유입과 도서 지역 문화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강돌봄센터와 마음치유센터를 연계하여 주민 건강 돌봄은 물론 문화예술 활동 치유, 힐링 건강 축제와 연계한 섬 예술제 개최 등을 통해 주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인구 유출 방지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신우철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도서 지역 복지 및 문화 여건이 개선되어 인구 유출 감소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술 치유 인력 양성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우재단은 고 김우중 대우 회장이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신안, 무주, 진도에 이어 1980년 노화읍에 완도대우병원을 설립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우재단은 외딴섬 의료 사업 외에도 대우 학술총서와 아트선재센터 등 문화예술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해남군, 실버인지 놀이지도사 자격증 취득 취·창업 교실 운영  
경력단절여성 등 7월 5일까지 모집

해남군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실버인지 놀이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여성 취·창업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취·창업교실에서는 어르신에 대상으로 뇌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놀이, 레크리에이션, 게임 등을 통해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실버인지 놀이지도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노인 건강특성 이해와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음악운동 등 총 8회차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수료 및 자격증 취득 후 전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창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은 7월 6일부터 총 30명을 1, 2기 2개반으로 운영하게 된다. 교육대상은 관내 거주 여성으로 저소득층,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여성 취·창업교실은 미래행복평생교육원에 위탁운영하며, 1기는 7월 5일까지, 2기는 9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지난해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40명을 운영, 3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1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장흥군, (주)카카오게임즈 사회공헌 캠페인 '찾아가는 프렌즈게임랜드' 내일까지 진행

장흥문예회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흥군은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주)카카오게임즈(대표 조계현) 사회공헌 캠페인 '찾아가는 프렌즈게임랜드'를 장흥문예회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프렌즈게임랜드' 행사에서는 4D VR(사차원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게임버스를 운영한다.

시각이 아닌 촉각을 이용한 점자블록 프로그램이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올해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가 그려진 종이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프로그램이 새로이 추가되어 어린이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특히, 올해는 문화가 있는 날에 찾아가는 프렌즈게임랜드 행사를 개최하여 보다 뜻깊은 행사를 군민들께 선사할 수 있게 됐다.

참여 어린이는 "작년에는 형과 누나들이 카카오 VR(증강현실)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지만, 올해는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는 것이 안타까웠으나, 이렇게 대기업에서 직접 찾아와 최첨단 놀이문화를 제공해준다는 것이 너무 고맙다"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찾아가는 프렌즈게임랜드' 행사는 (주)카카오게임즈(대표 조계현)의 주관으로 작년 전남 최초로 장흥군에서 개최되었으며, 지역에 구애 받지 않는 게임 문화 확산을 위해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장흥=김도영기자



## 강진군, 녹색경관 조성 추진위원회 발대식 개최

강진군은 지난 27일, 강진만생태공원에서, 강진원 군수와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진군 녹색경관 조성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강진만 생태공원과 지방 정원'에 군민과 향우, 사회·기관단체들이 기증한 나무를 심어 멋진 정원을 조성하고 군민과 향우, 관광객들에게 강진만 생태공원의 대대적인 변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강진군 녹색경관 조성 추진위원회는 생태공원과 지방 정원 일원의 조성사업에 군민과 향우 등의 나무기증 운동을 전개하고 군민의 정원문화 홍보를 자발적으로 추진해, 하나 된 힘으로 강진만 생태공원을 녹색 경관으로 조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발대식에는 강진군 사회·기관단체장 및 읍면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해, 각계각층의 나무기증의 염원을 담은 노란 리본을 나무에 매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군은 앞으로 주민주도형 나무 기증 참여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기증자의 표지석 설치 계획을 갖고 있으며, 지방 정원과 연계해 남포마을 빈집을 활용한 작가정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순철 강진 부군수는 "많은 분들의 나무 기증 운동으로, 강진군민과 사회·기관단체가 함께 만드는 의미있는 생태공원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선옥 녹색경관 조성 추진위원장은 "우리 추진위원회가 숭선수범이 되어 생태공원과 지방정원 조경수를 기증해, 강진만의 특색있는 공원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에 나무를 기증하고 싶은 군민은 올해 10월 말까지 읍·면사무소나 전락사업추진단(061-430-5387)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영일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